

지역 여성모임 곳곳 '활기'

지자체 부활뒤 부쩍 늘어나 현재 10여곳 달해
생활·교육환경 개선 주력...교양·취미강좌 다양

지역여성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29일 창립된 서울 동작구의 '동작여성자치회'를 비롯해 노원구의 '노원·도봉지역협의회', 구로구의 '살기 좋은 구로지역 만들기 여성회', 경기도 부천의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한 여성모임' 등 최근 들어 생긴 지역여성모임만도 4개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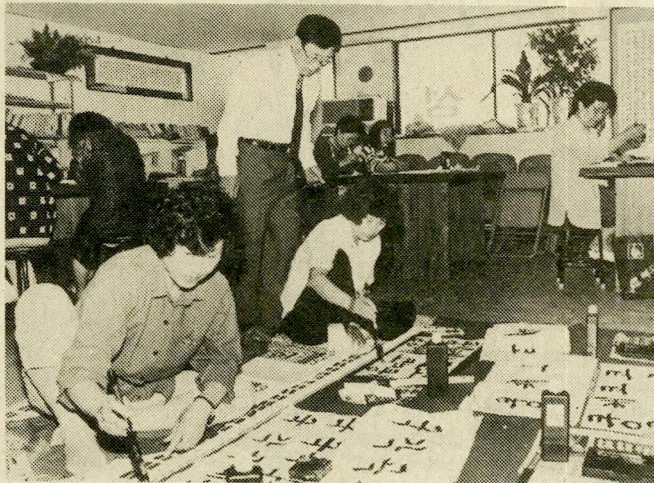
85년 인천시 북구 십정동 산꼭대기 동네에 사는 주부 10여명이 '해님여성회'를 만들어 산동네 쓰레기문제 등을 해결해나가면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여성모임은 지난해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부쩍 늘어나 현재 10여개에 이른다.

지역여성모임은 이름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만든 모임으로, 대체로 20~50대 주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열등감·소외감을 느끼던 주부들이 요즘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알찬 내용의 강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들의 욕구에 맞춰 지역여성모임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추세이지요."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노원구의 노원·도봉지역협의회 대표를 맡아 독립한 이경숙씨의 분석이다.

노원·도봉지역협의회에는 노원구 일대에 사는 주부 2백여명이 참여해 생활교양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는 한편, 유기농법으로 재



주부들이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을 하는 장으로서의 지역여성모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천규 기자>

배한 우리농산물 먹기, 지역환경 개선운동 등을 펴고 있다.

지역여성모임들은 여성의 사회의식 개발 및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내 생활·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 교양·취미강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모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취미·교양강좌는 한글·한문·일본어회화·생활영어·홈패션·서예·수지침 등이 대부분이고, 요즘 주부들에게 인기 높은 노래교실·전통무용·풍물교실 등을 개설한 곳도 있다.

참가비는 강좌당 월 3천~7천 원으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월 3만~5만원보다

상당히 적어 주부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있다.

'살기 좋은 구로지역 만들기 여성회'의 정외영 총무는 "여성들의 힘으로 공단이 몰려 있는 우리 구로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표"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생활·교양강좌를 통해 여성·교육·환경·사회문제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을 키워 구로구 지역의 공해문제, 교육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정 총무는 밝혔다.

동작여성회 조무하 회장도 동작구 일대의 무의탁 노인 돕기를 비롯해 주부들이 조를 짜 우범지

대로 변해버린 지역내 도서관에 상주해 "누구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한 여성모임에선 지역내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놀이방 마련을 위해 상설알뜰가게를 운영하는 등 각 지역여성모임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지역여성모임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부격인 노원·도봉지역협의회, 해님여성회, 하나여성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은 13·14대 총선 때 출마했던 사람이나 그 부인이 조직관리 맡고 있다. 15대 선거에 대비한 조직기반 다지기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내 여성의 의식개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지역운동·여성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여성운동을 펴오다가 지난해부터 은평구에서 은막회와 연대해 주민·여성상담소를 운영중인 노영희씨는 "지역여성모임은 중앙차원의 여성단체운동이 미처 눈돌리지 못한 지역여성운동으로, '여성운동의 대중화'·'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지역여성모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연숙 기자>